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2000

KOREAN
FOR BACKGROUND SPEAKERS

2/3 UNIT (COMMON)

SECTION I
PROCESSING SPOKEN INFORMATION

TRANSCRIPT

PART A

QUESTION 1

기자: 오늘 뉴스 초점 '화제의 인물' 시간에는 인도 사람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을 체험하고 '저력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을 쓰신 라자크씨를 만나 보았는데요. 라자크씨가 그동안 한국 생활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몇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라자크: 1976년 9월1일 김포공항에 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언 24년이 되었습니다. 인도가 날 키워준 고향이라면 한국은 나를 성숙시켜 준 은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극히 안정되고 변화가 크지않은 인도 사회에 비교해 당시 한국은 건설 붐을 토대로 경제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었고, 경제 부흥에 자신감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느꼈던 강한 활력이 젊은 혈기의 내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강한 충격을 주었고 이땅에 정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인도와 비슷하게 전통과 경험을 중시하고 웃어른을 모시는 아름다운 정신적 문화는 한국을 편안하게 해 준 주요 요인이었지요. 한 가족처럼 대해 주었던 주위의 친구들이야말로 한국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 사람들에겐 묘한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평소엔 느껴지지 않았던 모습들이 국가적 위기나 큰 이벤트가 있을땐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거든요. '잘 살아보세'로 시작한 경제부흥운동, 88올림픽때의 시민의식, 그리고 외환위기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모습들은 분명 한국인들의 저력과 잠재력을 느끼게 해 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느껴온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 21세기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아일보. 1999년 1월 11일>

QUESTION 2

한국의 애국가에는 소나무가 등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일제때까지만 해도 남산의 소나무 분포율이 70퍼센트에 달할 만큼 서울 남산에 소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소나무의 효능이 각 부분별로 나타나 있다. 소나무 진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해서 상처가 아물게하고, 소나무 열매는 손발이 저린 병과 허약한 것을 치료하며, 소나무 잎은 속을 편안하게 하며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게 하며 장수하게 한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바위땅에 뿌리를 박아 내리려고 파고 들어 아랫부분이 휘어져 있다. 웬만한 나무는 말라 죽어버리기 쉬운 거칠고 비탈진 땅에서 눈바람을 참아내다 보니 가지조차 헝클어진 머리카락처럼 구불구불 어지럽다. 그 모습이 결코 순탄치 않은 주변상황으로 오랜 세월을 짓밟히면서도 한반도에 굳게 뿌리 박으며 모질게 참고 살아온 우리 민족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더욱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선조들은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저 홀로 끝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의 기상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우리잡지. 1999년>

QUESTION 3

과거 독일 주부들의 근검, 절약 정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을 깨어 속을 쏟은 다음 작은 스푼으로 껍데기 속에 묻은 진득진득한 흰자위를 긁어낸 다음에 버리지요. 또 무릎이나 팔꿈치를 기워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가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소비 절약에 대한 정신적 유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 전통속에는 그런 근검, 절약에 대한 유전자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전통 속에서 서구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근검, 절약에 관한 유전자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보채도 눈깔사탕을 통째로 주는 법이 단 한번도 없었거든요. 다 빠지고 몇 개 없는 그 이빨 사이로 눈깔사탕을 반으로 쪼개느라 애쓰며 오만상을 찌푸리셨죠. 그렇게 힘들여 쪼갠 반쪽만 주시고 그 나머지 반쪽은 다시 선반위에 얹어 놓곤 하셨지요.

또 할머니가 연필을 사줄 때는 제가 쓰던 연필 길이가 새끼 손가락 길이보다 짧아진 것을 재어보고, 확인한 다음에야 사주셨던 기억도 선합니다.

반드시 물자가 부족해서 또 성격이 인색해서 할머니가 눈깔 사탕을 쪼개고, 연필 길이를 재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의 절약은 물건을 아끼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서 나온 것이지요.

<한국인의 버릇. 이규태. 1991년 12월 20일>

PART B

QUESTION 4

우리 학교에는 월체어를 타고 강의하는 사이먼이란 교수가 있다. 그와 월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층에는 월체어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사이먼의 경우 학과 직원들이 거의 모든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교수생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는 세계적인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과 비슷하게 하반신과 손이 불편하다. 그래서 동력 월체어에 앉아서 강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세미나도 하고, 파티에도 참석한다.

그는 장애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모든 면에서 정상인보다는 불편하겠지만 장애자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정책이 그의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 전용택시이다. 사이먼은 아침에 출근할 때와 저녁에 퇴근할 때 이 택시를 이용한다. 오후 5시쯤이면 택시 한 대가 어김없이 우리 대학 본관 현관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이 택시는 다른 택시와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택시의 중간부분이 사원의 돛처럼 높게 솟아 있다. 손님이 월체어를 탄 채로 택시에 올라타기 때문이다. 둘째, 손님용 문이 앞뒤가 아니고 가운데 달려 있다. 몸이 불편한 손님이 타기 좋게 만든 것이다. 셋째, 뒤편 의자가 없고, 월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전철에 있는 장애인용 사다리와 비슷하다. 운전사가 이 사다리를 택시 문턱과 땅에 걸치고 월체어에 앉아 있는 손님을 택시에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런 교통비용에 대해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운전사는 사이먼을 태우기 위해 퇴근 시간이면 차를 현관 문 앞에 세워두고, 가운데 문을 열고, 사다리를 걸쳐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가끔 그 모습을 보곤 하는데, 볼 때마다 참 흐뭇하다.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해주는 사회 시스템이 정말 부러웠다. 돈을 가진 사람과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추진되는 사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이게 정말 사람사는 사회가 아닌가 싶다.

<나, 호주로 이민간다. 고태규. 1998년>